2000년대의 도약을 준비하는 국민대학교

현 승 일 국민대 총장

1. 민족의 대학에서 세계의 대학으로

국민대학교는 민족수난기에 독립운동을 이끌어 온 애국자 해공 신익희 선생이 건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설립한 해방후 최초의 사립대학이다. 임시정부의 요인으로 반평생을 중국땅에서 헌신하다가 광복과 더불어 환국한 해공 선생은 해방조국의 시급한 과제가 교육사업임을 통감하고 이승만, 김구, 김규식, 조소앙 선생 등을 고문으로 모신 '국민대학 설립 기성회'를 조직하였다. 마침내 1946년 9월 1일 '국민대학관'의 개교와 함께 초대 학장으로 추대된 해공 선생은 '以校爲家'의 교훈을 제창하여, 학교를 집같이 여기며 효친·진실·헌신의 정신으로 학문연마에 정진할 것을 설파하였다.

보인상고 교실 두 칸을 빌려 출발한 '국민대학관'은 1948년 종로구 창성동 새 교사로 이전함과 동시에 '국민대학'으로 개편하여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민족의 비극 6·25전쟁과 50년대의 정치·사회적 혼란, 그리고 해공 선생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인해 한때 존망의 기로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쌍용그룹의 창업자인 성곡 김성곤 선생이 1959년 재단을 인수하면서 국민대학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1960년대에 학과 신설, 입학생 증원 등 규모면에서 급성장한 국민대학은 1971년 북한산 국립공원 기슭의 아름다운 정릉 언덕으로 캠퍼스를 옮김으로써 제 2의 도약을 하게 되었다. 본관에 이어 2호관, 공학관, 도서관 건물의 완공과 함께 시청각실, 박물관, 방송국, 연구소 등의 부속시설을 구비하고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신설함으로써 명실공히 최고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면서 마침내 1981년 3월 종합대학인 '국민대학교'로 승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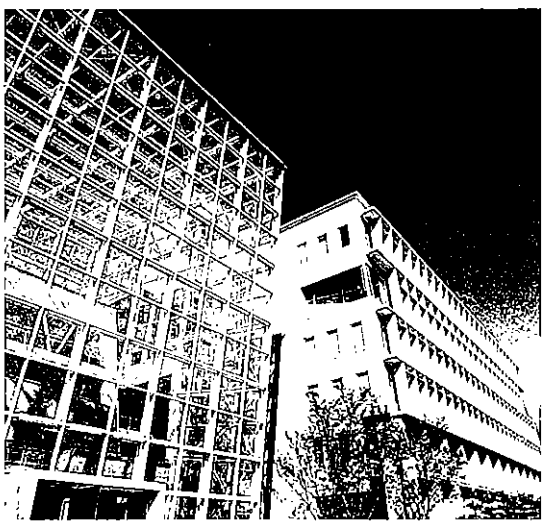
2. 질적 성장은 양적 성장을 기반으로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이후

1980년대의 완만한 성장기를 거친 '국민대학교'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학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쌍용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토대로 대학의 양적 성장과 교육인프라의 확충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1999년 2학기 현재, 우리 대학의 11개 단과대학, 17개 학부, 14개 학과, 12개 전문 및 특수대학원에는 교수 270여 명과 학부생 12,000여 명, 대학원생 2,000여 명이 몸담고 있어 1980년대 초에 비해 가족 수가 거의 두 배로 증가하였다.

교육인프라의 확충을 위해서, 우선 북한산이 병풍처럼 둘러친 6만여 평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건물의 신·증축을 통해 각 단과대학과 성곡도서관, 국제교육관, 전산정보원, 박물관, 체육관, 민속관, 공동실험기기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기능적으로 배치하였다.

아울러 21세기 정보사회에 걸맞은 미래형 캠퍼스 구축을 위해 일찍부터 캠퍼스 전역을 초고속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이를 학사, 행정, 연구지원, 멀티미디어 강의, 인터넷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1996년 교육부,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동아일보 등이 주관한 전국 대학정보화 평가의 여러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1997년 교육부 교육개혁 평가에서도 정보화부문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3. 이제는 질적 도약을 이루어야 할 때

최근 국민대학교는 교육부의 '두뇌한국(BK) 21' 사업 중 특화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과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등 두 분야에서 사업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그 밖에 핵심분야에서도 11개 팀이 지원해서 9개 팀이 선정되는 등 우리 대학이 가진 잠재력과 인적 자원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결코 우연히 얻어진 것도, 하루 아침에 얻어진 것도 아니었다. 이미 우리 대학에서는 1996년부터 그 동안 이루어 온 대학의 양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질적 도약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준비해 왔다. 도약 2000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 발전계획은 지난 약 3년 동안 전 대학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으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올해 초 비로소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의견을 모으는 과정속에서도 UI(University Identity), 교수업적평가제도, 팀제 행정조직, 특별팀(Task Force) 제도 등과 같이 중요성이 높으면서도 시급한 개혁과제들은 이미 상당수가 실천에 옮겨졌으며, 그 성과 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4. 2000년대의 도약을 준비하며

우리 대학의 도약 2000 프로젝트는 급변하는 대학환경에 대한 창의적이며 자발적인 대응이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없이 자체적으로 ① 발전의 기본방향 설정 및 공감대 형성, ② 전 구성원의 잠재력 극대화, ③ 가용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도전과 경쟁의 대학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교양과 전문성을 겸비한 21세기형 인재양성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과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담아

낸 것이 도약 2000이다. 5대 발전전략과 96개 실천과제 및 4대 행동지침으로 구성된 도약 2000 프로젝트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발전전략 1 : 대학 정체성 및 이미지 확립

도약 2000에서는 대학발전을 위한 최우선 전략을 대학의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 데 두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실천을 위해서 대학의 정체성 확립 및 구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대학 이미지통합(UI), 교훈정신 함양 및 실천, 단대 및 학부(또는 학과)별 발전전략 수립 등 총 10개 과제를 설정하였다.

■ 발전전략 2 : 생산적 연구환경 조성

대학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 되는 연구의 수월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여기에는 최우수 교수진의 확보, 교수경쟁력 강화, 연구지원시스템 강화, 연구소 생산성 향상, 대학원 활성화를 위한 23개의 실천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 발전전략 3 : 특성화된 교육체제 확립

교육의 특성화 및 차별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구체적인 실천과제로는 학교발전을 위한 특성화 전략 수립, 열린 학사제도 정착, 교육과정의 다양화, 교육목표 구현 장학제도, 엄정하고 자상한 학생지도, 교육지원 시스템의 첨단화와 관련하여 총 21개의 과제가 있다.

■ 발전전략 4 : 친화적 캠퍼스 구축

북한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대학의 캠퍼스 환경을 감안하여 보다 자연 및 인간 친화적인 캠퍼스를 구축하는 것을 또 하나의 발전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에는 22개의 실천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크게 자연친화적 시설 및 조경, 인간친화적 공간활용, 캠퍼스의 지능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캠퍼스, 복지시설의 확대 등 5개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발전전략 5 : 서비스 지향 행정혁신

이상 네 가지 발전전략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효율적·효과적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서비스 지향 행정혁신을 도약 2000의 다섯번째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학생지원체계 강화, 전략적 홍보시스템 정립, 행정구조의 합리화, 행정서비스 강화, 재정운영 합리화를 위한 20개 실천과제를 도출하였다.

5. 맺음말

본 대학의 도약 2000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언제라도 창의적인 실천과제를 더할 수 있고 과제수행에 있어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열린 계획'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 변화할 필요가 있으면 과감하게 변하되 지켜야 할 것은 결단코 지킨다는 것이 우리 대학에서 추구하는 개혁 및 발전의 기본철학이다.